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원산군민 발전소를

### 현 지지도 하시었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군민 발전소의 언저리를 보고 또 보시면서 자신에게는 발전소언저리가 하늘이 천만 번 무너진대도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장벽,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불멸의 위력의 높이로 보인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저리에 새겨진 자력갱생이라는 대형글발을 가리키시면서 정말 힘이 난다고, 이 발전소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들어쥐고나갈 때 못배벌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준 발전소, 우리 당의 굴함없는 풍격정신이 숨배여있는 발전소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대국을 기어 이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원산군민발전소의 연쇄소개설과 원산군민2호발전소의 발전기설, 조종실 등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전력생산 및 공급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군민발전소는 설계도 잘되고 건설물의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다고 하시면서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기념비적창조물로 번듯하게 일떠세운 강원도인민들의 투쟁에 머리가 숙여진다고, 부강조국건설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강원도인민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전소의 설비들에 대한 정상관리, 정상유지를 잘 할때 대한 문제, 송전계통의 도중손실을 없애며 운전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설비들을 안전하면서도 능숙하게 다룰때 대한 문제, 통합생산체계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때 대한 문제 등 원산군민발전소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군민발전소를 돌아보면서 강원도인민들의 투쟁분대를 대하고보니 당의 부름이 이런 강한 인민과 함께라면 천리불속이라도 헤쳐갈 수 있으며 사회주의강대국의 문제를 맡게 될 날을 앞당겨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에 능력이 대단히 큰 발전소를 또 하나 건설한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고 불러주시며 온 나라가 따라 배울데 대한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군민 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이려면 목숨을 내대고 끝까지 관철 하려는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고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는 신념을 안고 끝쳐나서도록 그들 속에서 조직적지시업을 진공적으로 벌린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강원도당위원회의 사업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당조직들은 간고한 투쟁으로 고귀한 경험을 창조한 강원도당위원회처럼 당계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들어쥐고 만리마속도창조로 당원들과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빛나는 승리를 앞당겨와야 한다고 강조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인민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더욱 커졌다고 하시면서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창조와 건설의 동음소리를 더 높이 울리며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달려나가고 힘과 용기를 안겨 주시었다.

원산군민발전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총령의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최후의 돌격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일리에 찾아오시어 나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전도 적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적정을 금치 못하면서 김정은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었다.

본사정지정보도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 나이제리아 인사가 선물을 드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나이제리아 인민진보당 전국위원회가 선물을 드리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7일 2017년 백두산위명성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다미안 오그본나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이 정영철 나이제리아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전국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홍보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삼가 선물을 드리는 영광을 지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장 엄중하였던 항일 무장투쟁시기 백두산에서 조선을 빛내이실 광명성으로 솟아오르셨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어 인류사상 처음으로 정칙화하여 인류사상 처음으로 완히 밝혀주시었으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현시대 국가건설의 명확한 지침을 안겨 주시었다.

그이의 사상과 업적은 인류의 앞길에 밝은 빛을 뿌려주는 새벽과도 같은것이다.

하기에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전보적인 민중과 함께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지도부와 전제 당원들은 김정일동지께를 받들어 반짝이는 광명성으로 높이 우리들로서 그이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신것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본사기자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 혁명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민주공화국, 이탈리아, 네발에서 업적도 문화와 도시, 사회진보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령명정애와 업적을 담은 사진판들이 행사장들에 모셔져 있었다.

이탈리아의 공식명 국제무장은 지금으로부터 5년전 민족의 어머니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던 조선인민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백두성에서 진행된 행사에

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리는 전물이 채택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이 도이쾨른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회고모임에는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도이쾨른드공산당 위원장과 도이쾨른드공산당 위원장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리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 인류사상 처음으로 승리하여 이끌고 오셨으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노력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헌신에 대하여 격찬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훈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특정한 자연미세를 입었던 함북도 북부지역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창조된 것은 김정은동지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전위투구의 전설이다.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통일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이 명예전국지도자로 높이 모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나이제리아 인민진보당이 명예전국지도자로 높이 모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명예전국지도자칭호증서를 다미안 오그본나 전국위원장이 정영철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증서에는 특출한 정치지도력과 훌륭한 자질을 지니신 김정일동지께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명예전국지도자칭호를 드린다고 쓰여져있다.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은 당지도부와 전제 당원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명예전국지도자칭호를 수여해드리는 영광을 지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조선에 빛을 이실 최대의 뜻을 품으시고 당, 국가, 무력건설

에 영원불멸한 공적을 쌓아올리셨다.

특히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을 사소한 짐재나 담보물 보르며 오직 수령의 명도에 충실한 수령의 당,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셨다.

김정일동지께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명예전국지도자칭호를 수여해드리는것은 우리모두의 영광한 도리이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건강하시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이끄시는 고귀한 사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

의식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